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제35화 붓다의 귀향



**기** 원정사로부터 동북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붓다의 고향이며 사카족(Sakya) 수도인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 迦毘羅城)가 있다. 붓다가 가까운 기원정사에게 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쑤도다나(Subhadana)왕은 붓다에게 우다하인(優陀夷)대신을 특사로 긴급히 파견하여 붓다의 귀성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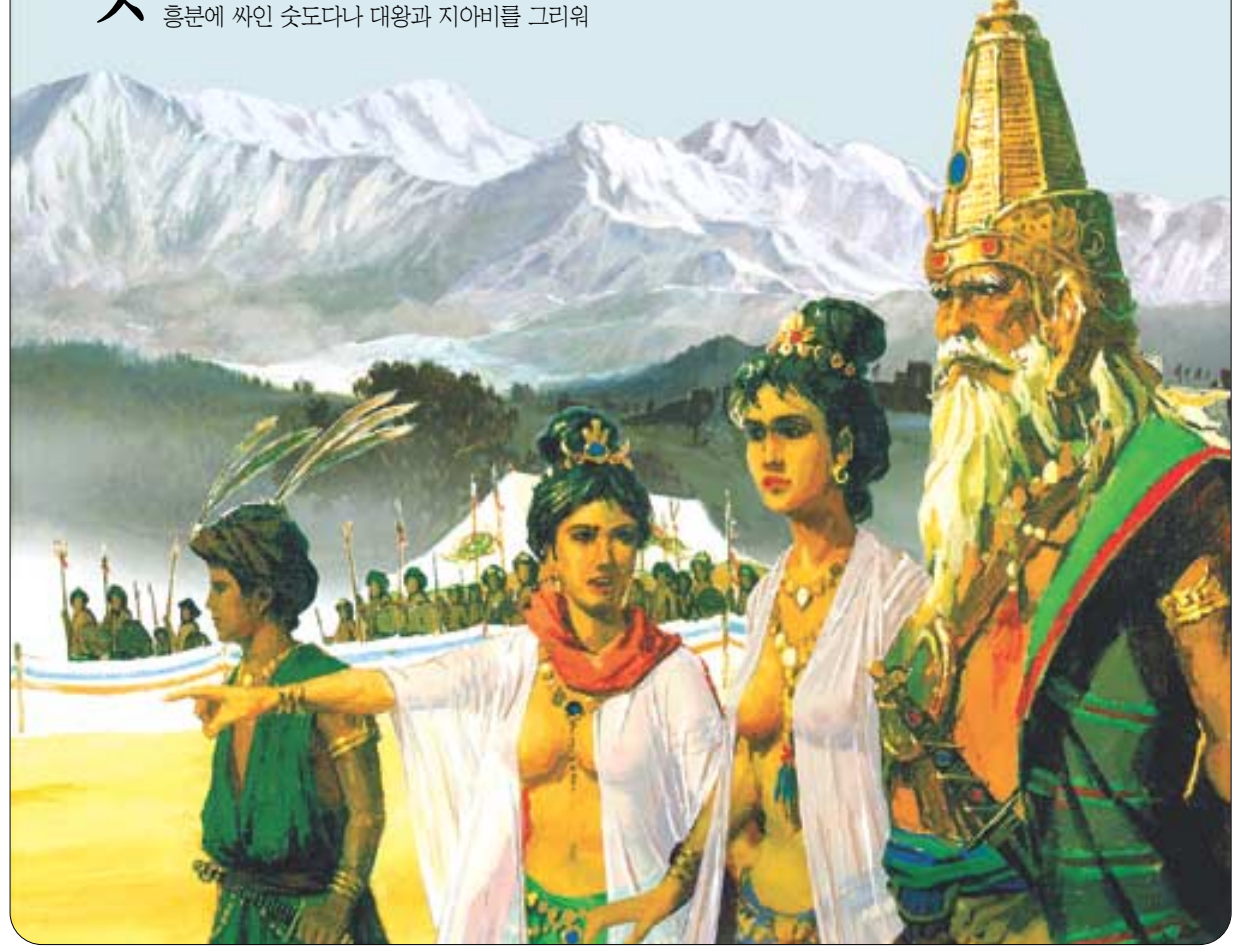
“그렇지 않아도 이전 기원정사도 안정되었으니 카필라

바스투의 사카식구들을 한 번 찾아가 벼을 생각이었지. 마침 잘 되었다. 부왕마마의 초창이 아니더라도 나는 사카족들에게 법륜을 끌려야 할 의무가 있노라. 일부 비구들은 이곳에 남아 수행을 계속 하고 다른 비구들은 나와 함께 카필라바스투로 가서 아직까지 불법에 관하여 무지한 사카족들을 깨우쳐 주도록 하자.”



**섯** 다르타 왕자가 집을 떠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그는 붓다가 되어 온다고 한다. 흥분에 찌인 쑤도다나 대왕과 지아비를 그리워

하던 야소다라 부인 그리고 성인의 모든 사람들은 붓다의 귀성을 마중하기 위하여 성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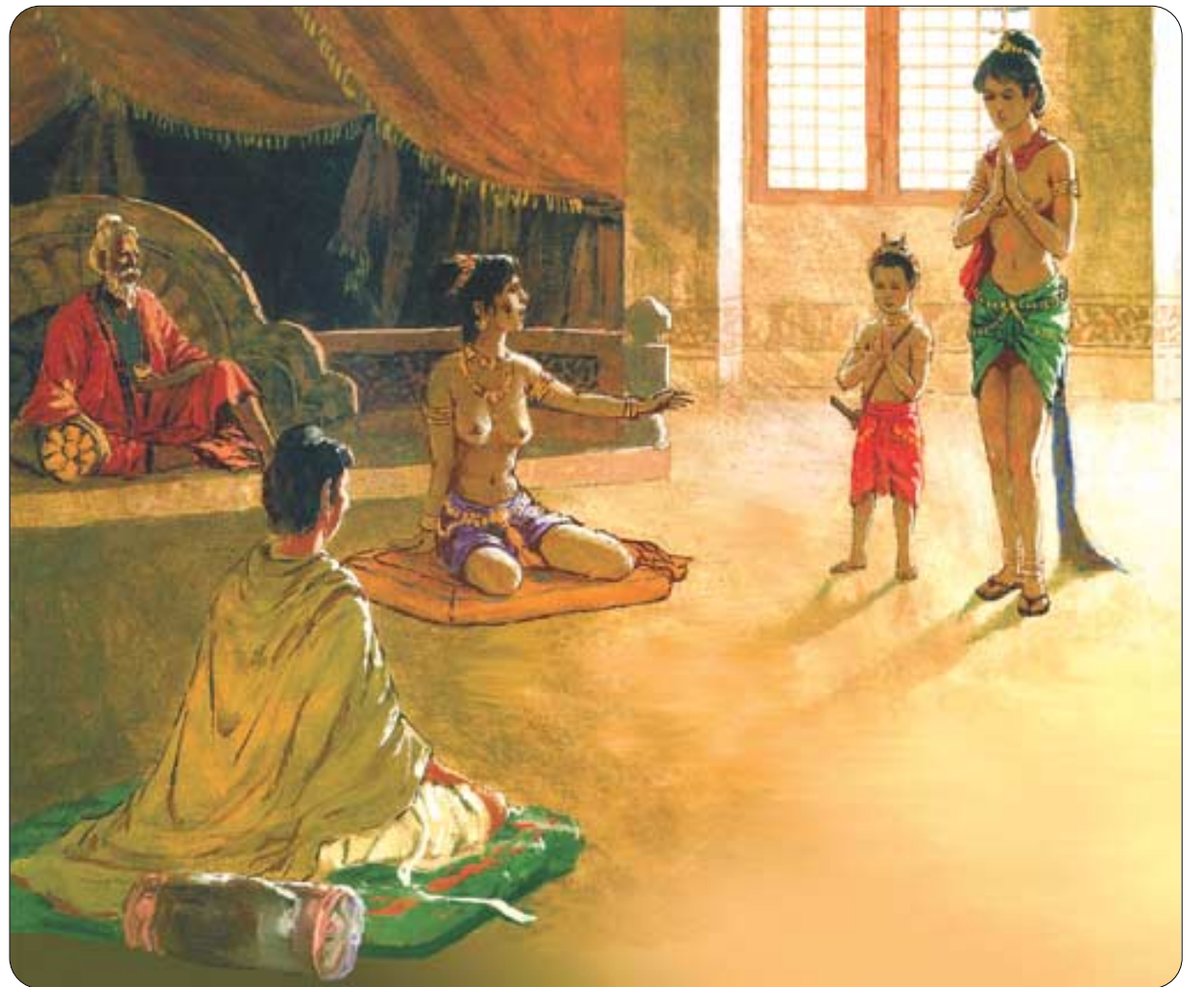
**이** 세상 최초의 대왕이신 마하삼마다(Mahasudarana)의 피를 받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天孫) 사카(Sakya)족의 태자로 태어났음에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떠나 버렸던 사람,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어 사카족을 천하제일의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예언되었던 사람, 그러나 왕위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렸으며 민족의 기대마저 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랬던 사람 싯다르타(Siddhartha)태자가 지금은 성중성(聖中聖) 붓다(Holy Buddha)가 되어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로

돌아오고 있다. “비록 민족의 숙원인 전륜성왕(Cakra-Varti-raj)은 아니더라도 세상이 열린 이래 아무도 성취한 바가 없는 정각(正覺)을 이루어 붓다가 되었다니 과연 우리 사카족의 위대함을 천하에 떨치신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우리 카필라바스투의 안전도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야. 제 아무리 포악한 강대국의 왕이라도 이제는 모두 붓다의 발아래 무릎 꿇는 신세이니 어찌 감히 성중성(聖中聖) 붓다의 조국 땅을 침범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 서 오너라! 나의 사랑하는 태자여! 내 죽기 전에 태자를 한번 다시 보기를 소원하였더니 오늘에 서야 그 소원을 풀게 되었다. 어서 오라, 태자야! 그동안 물결이 아워어 옛 모습이 없구나. 집을 떠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기에, 옛날 그 건강했던 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도 심려지 마옵소서, 아버님, 어머니. 이 소자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정각을 이루어 붓다가 되었나이다. 그동안 두 분의 모습이

꽤이나 늙어 보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쑤도다나왕과 새어머니 마하파자파티의 손에 이끌리어 궁성으로 들어간 붓다 앞에 그의 아내인 야소다라(Yasodhara) 제 1태자비가 이제 10살의 귀염둥이 라훌라(Rahula)왕자를 데리고 나타났다. 10년 세월, 눈물로 그토록 기다렸던 출가한 남편을 바라보는 야소다라는 원망의 눈빛으로 그녀의 마음을 남편에게 전했다. 철없는 아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위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어린 맑은 눈동자로 아버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야** 소다라 참으로 오랜 만이오. 지금도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구려. 라훌라를 키우느라 참으로 수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붓다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출가의 목적을 성취하셨으니 이제는 성으로 되돌아와 주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쌓인 원망으로 남편을 맞으며 한순간, 속 좁은 여인의 투정을 보여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

해 주셔야 남지않습니까?” “너희들은 지금도 나를 남편으로 섬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출가한 몸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이로다. 지금은 그 옛날의 태자가 아니고 6년의 고행 끝에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를 남편이나 태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